



세라믹 타일산업의 미래



허남석
(주)삼현
huramsuk@naver.com

모든 산업이 그러하겠지만 가장 빨리 향후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곳은 각종 박람회 또는 전시회라고 하겠다. 타일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마다 해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에 출품되는 제품들의 동향과 아울러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계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기적인 예측은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진행되어 온 타일산업의 발전방향은 자연석 질감의 재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유 및 인쇄기법 그리고 유약들의 개발이 진행되어져 왔지만 기존의 습식 시유 방법(wet glazing method)으로는 자연석의 입체감(mountain effect)과 natural한 질감(質感)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재현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된 것이 2대의 프레스를 사용한 건식 시유방법이다. 아직까지는 대중화 단계는 아니지만 금년 중에 시판 수준의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시스템의 출시에 앞서 건식성형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double charging system)은 높은 불량률과 낮은 성형스트로크 그리고 이 시스템 조작을 위한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 필요 등의 부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타일업계에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새로이 개발된 twinpress system(혹은 double press system)은 상기 double charging system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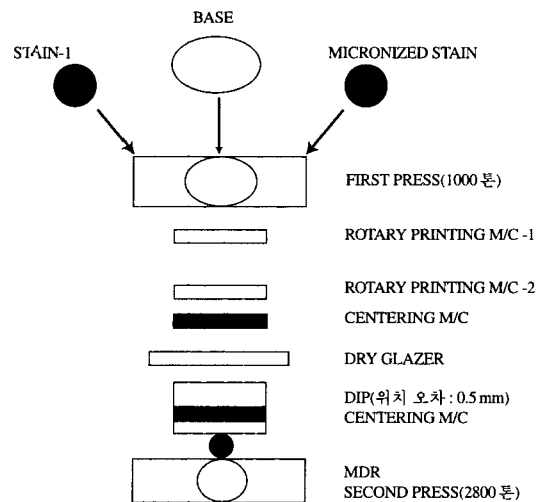


Fig. 1. Twin press system 개략도.

따라서 향후 이 시스템이 상당기간 타일산업에 적용이 되고 지속적인 개선(건식 시유와 습식 시유의 접목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다른 또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lamina system이라고 부르는 제조 방식이다. 앞서의 방식이 두께가 두꺼운 대형 타일의 제조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기술은 초박판형의 패넬 제품 제조방식으로 건식 또는 습식 시유 및 인쇄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이 향후 타일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사료된다.